## 사 설

# 정토실현은 내가정에서 출발

불교의 세가지 보배인 불보·법보·승보는 보존이나 상징적 의미로서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활용의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

불보는 부처님을 철저히 믿는 것, 법보는 부처님의 법문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 승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실천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삼보를 믿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이다. 이 모두는 마음의 다짐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 불자들도 신심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마음의 나래를 활짝 펴 보자. 마음으로 믿는 종교라해서 엉거주춤 드러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서투른 겸손일랑 걷어내어 버리자.

소신있게 믿고 밝음을 배워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 이 세상에 불교만큼 좋은 종교가 어디있나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는 불자이다"라는 자신을 갖고 살자.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이든 불자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남에게 신뢰받는 종교인으로 거듭나자.

자동차에 염주를 걸고 다니는 것도 불자로서의 표현이겠지만 더 나아가 대문에도 불교의 표어를 붙이고 집안에도 불교의 그림이나 법구를 적은 액자를 걸어 놓고 신앙적 의미를 항상 되새기며, 합장주나 호신불을 지니고 마음의 안온을 찾는다면, 그의 생활은 날로 자신있는 희망적 삶으로 펼쳐질 것이다.

불교는 본래 할머니들만 믿는 것이고,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종교가 아니다. 청년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제자는 눈푸른 남자 다섯 사람이었다. 또 부처님께서 창조적 절대자를 믿는 미신을 타파하고, 조물주에 얽매인 우상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스스로 '나' 자신의 위대함을 깨달으라고 외치시던 법석엔 항상 1천2백50명의 남자 제자들이 추종하였다.

한국불교 1600여년 역사상 신라·고려의 천년은 임금도 관리도 귀공자도 출가하였으니, 불교가 참으로 평등·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종교임을 알게된다. 다만 조선조 500년 동안 성리학을 맹신한 결과 인간의 심성보다 의례와 문사(文詞)에 치우치고 억불숭유의 정책하에서 남자가 절에 드나드는 것이 입신양명을 포기하는 행보로 여겨졌다. 그러한 습속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남자신도는 법회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풍토를 낳게 되었다.

이제 21세기, 세계가 한 마당인 밝은 세상을 맞아 불자들은 스스로 그러한 폐습을 깨어버리고 당당히 나서야 된다. 다행히 요즘 일요법회나 불교의 각종 행사장에 가보면 남자나 젊은 불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 불자도 긍지와 소신을 갖고 굳은 신심으로 배우고 실천하여 깨달음의 생활화를 성취토록 해야 한다. 이에 불자로서 자신감을 갖고 대승보살도를 실천하여 먼저 나의 가족이 하나되고 이웃과 사회가 하나되고 세계와 우주 자연이 모두 나와 더불어 하나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평화와 복지로 충만된 불국정토가 실현되도록 하자. 그러한 노력은 불자로서의 신행 그 자체요 긍지일 것이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이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뜻도 바로 시대를 이끌어 가는 불자의 사명과 긍지, 소임과 역할을 당당히 천명함과 동시에 그것을 대사회적 약속으로 격상시키는데 있다. 비록 작은 스티커 한 장을 대문에 붙이는 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는 적어도 세가지 의미, 즉 불자로서의 긍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의 실천, 가정에서 출발하여 사회로 확산되는 정토실현의 서원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누구나 '나는 불자'라고 말할 때 먼저 가르침의 실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거듭 말하지만 자신에 대한 다짐이요 이웃을 향한 선언일 것이다. 고로 스티커를 붙이는 그 순간부터 솔선수범하는 시민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부단히 점검하고 반조하게 될 것이며 또 불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불자가정 스티커 부착운동은 이천만 불자 전원이 동참하여 한국이 불국정토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불자 가정' 스티커 붙이기운동 전개

## 이웃사랑·환경운동·보살행 첫 걸음

**월주스님**

「불자가정」 스티커를 붙이는 일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긍지를 갖는 일이다. 동네내에서 어느 집이 불자가정인지 알 수 있기에 서로 교류하는 등 도움되는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표어가 들어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동체대자대비심을 늘 가지고 보살행을 펴는 실천운동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운용이라 생각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최재홍씨**

우리의 사회는 물질만능 정보화시대로 급변하면서 자연은 오염되고, 인간의 본래 심성마저 타락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명제는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삼라만상 모두가 같은 뿌리에서 시발된 존재로써 더불어 살아야하는 필연적인 진리(法)인 만큼 2천만불자는 불자로서의 확고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진각종 총 금강회장〉

**윤선덕화 보살**

아내는 일요일 절에 나가고 남편은 멀뚱하니 집에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주변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이 함께 불심을 모으는 불자가정만들기를 주부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환영한다.

〈주부·서울 삼계동〉

**김두원씨**

현대불교신문사, 종단협, 진흥원에서 공동 주최하는 '불자의 집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 진실로 반갑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절 저 절 기웃거리면서 나와 우리가족만이 잘되게 해달라는 불자, 초파일 등을 밝히기 위한 하루만의 불자가 아닌 세세생생 불자임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되는 세상, 부처님세상은 바로 이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광주불교 능인회 회장〉

**양재국씨**

자동차 뒷유리가 광고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시대다. 그래서 회사의 마크나 종교적 징표를 부착한 차량도 많은 것이다.

'우리는 불자가정'이란 스티커가 차량용으로도 보급된다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통신원들도 차에 부착하는 것은 물론 차내에 스티커를 비치해두고 불자 손님에게 적극 보도할 계획이다. 이 운동이 전국의 불자들 가정마다 '불자문패'를 달 수 있을 때까지 지속 되길 바란다.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회장〉

**이문수씨**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세계화란 구호는 다른것이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진하는 길입니다.

특히 불자라면 '나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실천수행하는 것이 불제자로서 간직해야할 덕목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천태종 중앙청년회장〉

**정희돈씨**

우리불자는 응집력을 가져야 하고 당당함과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각자의 집에 불자임을 표시하고 이웃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자는 내용의 스티커를 매일 보게되면 자신의 삶과 각오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영남대 교수〉

## 현 대 만 평 박구원

부처님 말씀이 곧…

## 시 론

# '불자 실명제' 선언 자긍심 갖자

「불자 실명제」라는 말이 생겼다. 자기가 불자이면서 불자라는 것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긴 말이다.

어떤 재가불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내빈으로서 축사를 하던 국회의원이자 장군인 열심한 불자 한분이 「넥타이를 맨 지식인, 사회지도자들」이 「나는 불자다」하고 나서서 각자 불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하자고 모인 광경을 보고 내뱉다 싶이 튀어나온 말이 이 말이다. 「여기는 불자실명제가 돼 있군요」하는 것이었다. 자각있는 재가불자들로서는 누구 한 사람 자기가 불자임을 감추려는 사람이 없다. 그런 자각을 갖고 사는 재가불교인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가 불자임을 감추고 숨기기는 커녕,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자기네들처럼 불법의 고마움을 알고 불법이 가르치는 대로 보살이 되어 이 혼탁한 사회를 맑고 깨끗하고 행복한 불국정토로 만드는 일꾼이 되게끔 하느냐 하는 그들 자신의 중차대한 사명과 책임에 더 깊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다 더 나은 불자, 부처님께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 보살로서 부족함이 없는 불자가 되느냐 하는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 기 영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우리는 자기가 불자라는 것을 감추고 숨기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출세에 지장이 있어서…

둘째, 인간관계상 조화를 고려하여…

셋째, 또는 자기열등감 내지 자신감의 부족에서…

### '나는 불자' 사명 다짐

위의 세가지 중 첫째와 둘째의 둘은 익명불자 자신이 내놓는 이유들일 것이지만 결국은 셋째가 그 주된 이유가 되어 있을 것이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집안이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어서, 또는 어머니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불교에 적을 둔 사람일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한때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 불법에 입문은 했으나 불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삶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도 불자다」라는 자각도 긍지도 생기지를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부귀공명은 제일가는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가치있는 것, 다시말하면 보살이 되어 수행하는 일의 가치라던가, 부처라는 분의 존귀한 까닭이라던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 「나는 불자이다」라는 자각이나 긍지를 공공연히 대중들 앞에 들어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편 불자답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의 허상(虛像)을 불교의 이름으로 미화하고 장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불자 형제자매로부터도 빈축을 사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 담장과 울타리를 헐고

불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때도 있다. 마치 요새 한국인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부주의, 방심, 기술부족, 부정부패(협잡, 뇌물수수, 공사비 떼먹기 등등)로 인한 대형사고 때문에 온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빈축, 조소로 인해 받는 부끄러움과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조선조 5백년의 배불, 억불과 일제 36년간의 왜색불교의 영향, 그리고 해방 후 50년간의 미·소 양대 세력하에서 벌어진 외래문물의 수입 홍수와 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에 걸친 침투는 아직도 자기 주체성을 정립하기에 미흡한 우리 불교인들에게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그 궤도를 수정하여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힘겨운 상황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21세기를 바라 보는 현대 세계의 문명은 분명 몰락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한국의 서구화된 지성만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꺼져가는 서구문명의 낙조(落照)를 새벽의 서광(曙光)인양 착각하고 있다. 긴 잠에 들어 꿈을 꾸고 있다. 마약에 취한 중독자와 같은 혼미 속에서 헤매고 있다.

불교가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와 다르다는 점을 우리 불교인들은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꿈꾸며 방황하며 호언장담하는 이 시대의 쏘피스트들에게 우리는 경종을 울려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그 엄청난 사명,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지혜, 용기와 힘, 그리고 대자비심을 갖춘 불자가 바로 보살이다. 진정한 불자는 바로 보살이다. 보살만이 언제 어디에서나 당당할 수 있다. 그는 무상의 대원(大願)을 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온 누리의 중생이 모두 다 깨닫고 그 작은 담장과 울타리를 헐고 실로 이 세상의 가난과 미망(迷妄)과 과오(過誤)를 치유하는 이타행의 대열의 선두에 선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불자이다.

보살은 그 마음이 아직도 더러울 때 부끄러울 수 있다. 보살은 그 행위가 아직도 철저하게 공평무사하지 못할 때 부끄러워 할 것이다. 그러나 보살은 결코 자기가 보살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횃불을 들어 줘야 마땅한 것이다.

불기2539년 부처님오신날

# 부처님의 慈悲光明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尹月下
禮敬室長 朴重來

元老會議
議長 金慧菴
副議長 金僧讚
副議長 金圓潭
事務處長 朴惺法

總務院
院長 宋月珠
總務部長 金梵河 總務局長 姜性慧
企劃室長 羅之鳴 企劃局長 朴萬成 監査局長 金法眞
財務部長 朴元愚 財務局長 李宗三
文社部長 金時玄 文化局長 車德信 社會局長 吳法光
事業部長 李雪松 事業局長 梁正滿
議法部長 鄭慧昌 護法局長 朴正念 調査局長 曺弘冠 常任監察 魏雨松
護法課長 金曉林 調査課長 朴雲光
司書室長 朴平常 司書次長 張眞悟 司書 曺愚眞

中央宗會
議長 田雪靖
副議長 黃日面
副議長 李靑和

護戒院
院長 吳杲山

敎育院
院長 金圓山
敎育部長 鄭香寂
佛學研究所長 宋德雲 總務局長 徐正門 敎育局長 朴虛舟

布敎院
院長 金正樂
布敎部長 金圓慧 布敎局長 金聖壽 鍊修局長 沈和庵